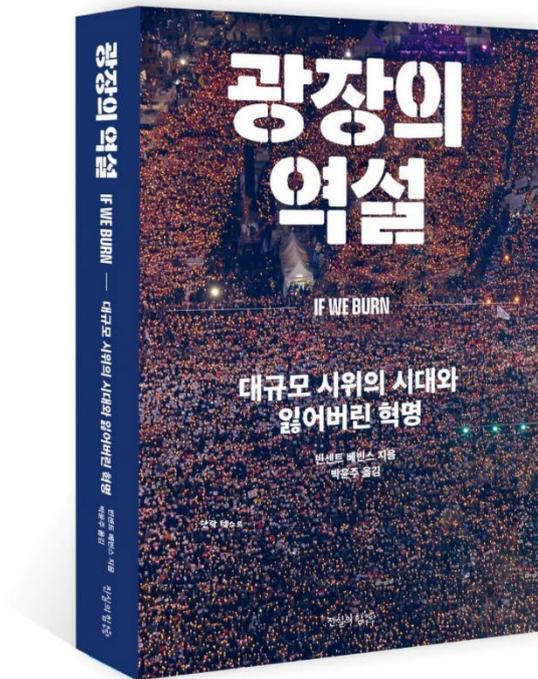


# 진실의힘 NEWSLETTER

새책 <광장의 역설>이 나왔습니다

## 광장은 왜 세상을 바꾸지 못했나?



‘아랍의 봄’부터 박근혜 퇴진 촛불까지,  
대규모 시위의 시대를 돌아보며  
‘빛의 혁명’을 건너고 있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뜨거운 질문들!

빈센트 베빈스 지음 박윤주 옮김

진실의힘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내란 사태에 맞선 시민들이 열어낸 ‘광장’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입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을 이루자며 광장의 시민들이 외쳤던 구호들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광장의 역설』은 거대한 사회운동이 실제로 사회를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워싱턴포스트》, 《타이낸셜타임스》 등에서 일하며 2010년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를 취재한 저자 빈센트 베빈스는 12개 나라에서 200명이 넘는 활동가, 시위 참여자, 정치인 등을 인터뷰하고 관련 문헌을 조사해 ‘겉보기에 별개인 세계적 사건들을 현재의 놀라운 역사로 엮어냅니다.’(역사학자 그렉 그랜딘) 그는 방대한 취재와 조사를 통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벌어진 수많은 대규모 시위가 어떻게 해서 시위대의 요구와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는가”라는 까다로운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합니다.

뜨거운 광장의 열기가 정권교체를 이루고도 끝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 것을 우리는 박근혜 퇴진 촛불에서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광장 이후’의 새로운 세계를 함께 꿈꾸고 만들어나가기 위해, 『광장의 역설』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제안합니다.

## [현장] 진실의 힘 123내란기록팀

###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싸웠던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

김현우(진실의 힘 123내란 기록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저는 계속해서 국회를 생각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날의 일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쉽사리 이해할 수 없었기에 자의든 혹은 타의든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것은 미디어로 접한 그날의 ‘광경’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민, 국회의원, 그리고 이들과 얽힌 수많은 경찰과 계엄군. 그날 그곳의 여러 움직임이 저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지만, 왠지 어떤 ‘풍경’을 멀리서 그저 구경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

었습니다. 영상에는 여러 음성 또한 담겨 있었지만, 분절된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에 있었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가 뜨고 사람들이 출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과 같을 수 없는 일상이었지만 또 그렇다고 크게 다르지도 않았기에 더 비현실적이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인터뷰이 분들이 제게 말씀하셨듯, 마치 꿈을 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뉴스에는 여러 장면과 온갖 정보가 쏟아져 나왔지만 그럴수록 더욱 의문만 커졌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한밤중 나타나 그곳을 지켰다가 홀연히 사라진 수천 명, 그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마치 신기루 같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던 '비상계엄'만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존재도 통째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온 몸으로 계엄에 맞선 시민들. 김다인 제공.

현실과 유리된 이러한 느낌을 떨쳐내기 위해 집회에 나가는 것도 지쳐가던 3월 말, 운 좋게도 총 300명의 구술 기록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진실의 힘 12.3 내란기록팀([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시간](#) 참고)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그곳에 나갔던 47명의 시민을 만났습니다. 3개월간 각 평균 2시간, 무려 90시간 이상의 인터뷰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양껏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그날 그곳에 대한 증언뿐만 아니라 살아온 삶과 가치관 같은, 평소라면 쉽게 들을 수 없는 내밀한 경험과 마음까지 기꺼이 나누어주셨습니다. 지문처럼 고유한 삶이 매일매일 다채롭게 흘러들어오는 3개월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시

작하기 전의 4개월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무리 외쳐도 소리가 퍼져나가지 못하는 흡음실과, 저의 목소리만 되돌아오는 반향실을 번갈아 오가는 듯한 느낌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저의 머릿속에 타인의 목소리가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연고가 없는 사람이라 내가 죽어도 여차피 슬퍼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 나는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오셨대요.”*

*“자기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일을 마치시고 손을 씻고 있는데 어떤 다른 비슷한 또래 여성분이 “이제 우리는 다 늙은이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약에 발표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 노인들이 가장 앞줄에 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여성분들이 다 “그렇시다. 그렇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엇보다도 저의 벽을 허물어뜨린 것은 ‘일종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회를 막지 못한, 혹은 만드는 데 일조한 것에 대한 책임, “나는 안 찍었다. 찍은 사람들이 책임져라.” 같은 말과는 거리가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것도 감수하고 나간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가해자’의 자리에 가깝게 위치시킨다고 느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비상’ 상황이라며 폭력을 동원해 다른 사람들의 몫을 빼앗으면서도 스스로 피해자라고 말하는데, 역설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도 삶의 매순간이 ‘비상’인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현장의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뒤의 삶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자, 목소리들이 이전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하는 목소리, 항의하는 목소리, 흐느끼는 목소리, 호소하는 목소리, 염려하는 목소리, 환호하는 목소리, 감사를 표하는 목소리. 목소리는 흘러넘쳐 저의 벽을 무너뜨렸고, 매일같이 타인의 삶에 흠뻑 젖어 퇴근하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고유한 인간들이 모여 역사를 만들어낸 순간을 간접적이거나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 개인적인 삶의 고민은 작아지다 못해 녹아서 사라진 듯 느껴졌고, 나와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용기와 고유한 이야기들에 매일 소름이 돋고 눈물이 고이는, 벽차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날 이후 ‘새로 태어났다’

는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마 과거와 현재의 여러 용기있는 목소리들을 만나 연결된 느낌을 말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온 몸으로 계엄에 맞선 시민들. 송태현 제공.**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우리 시대의 ‘인간형’을 포착한 소중한 기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300명의 목소리를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 것인가가 우리 12.3 내란기록팀의 무거운 과제입니다. 한밤중 나타나 그곳을 지켰다가 홀연히 사라진 수천 명의 사람들, 그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저만 궁금했던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짧은 후기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진 못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게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고 폭력적인 망상에 불과했던 ‘비상계엄’과 다르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존재는 전혀 비현실적이고 특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나타났던 사람들은 우리 역사에 항상 존재한 이들,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싸우며 희생한 수많은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는 과거와 현재의 여러 목소리가 2024년 겨울, 국회 앞 시민들의 몸을 통해 다시 울려 퍼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극단적인 폭력에 맞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온 가장 ‘현실적’인 가치라는 것을, 권력이 아무리 탄압하고 지우려고 애써도 서로를 향한 목소리에는 강한 힘이 있기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12월 3일에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인터뷰의 공통 질문 중 하

나입니다. 이에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저 하나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었겠지만...” 그러나 한 번 눈을 감고 생각해봅시다. 그곳에 나간 ‘모두’가 그 말을 하는 모습을. 각자의 일상을 보내던 이들이 12월 3일 10시 반 이후 위와 같은 마음으로 비상계엄 하의 국회를 향해 긴장한 모습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글을 쓰면서도 소름이 돋습니다. 사회의 모습이란 결국 그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가 씨름한 이 질문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품었던 귀한 마음과 행동의 결과 위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간과되곤 하는 이 ‘상식’을 붙잡고 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저항마다 반복되는 이 귀한 교훈과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쉽게 잊히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이번 구술 기록 작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2.3 내란기록팀도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겠습니다. 지면을 빌어 그날 국회 앞 현장을 지켰던 모든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집회에서 마주한 깃발, 김현우

[기록]

## 창동 노트

주용성(사진가)



주용성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작가님은 남긴 풍경과 사회적인 문제, 특히 정치적이고도 사회적인 죽음에 관심을 두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 123내란 기록팀] 구성원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123시민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글과 사진은 ‘서울시립사진미술관’ 개관에 맞춘 기획 사진전《스토리지 스토리(Storage Story)》에 참여하며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지난 5월 29일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은 ‘사진’이라는 매체를 특화한 국내 최초의 유일한 미술관이다. 나는 사진미술관이 자리한 “창동의 역사성을 가진 사진 작업” 제안을 받고 기록 작업을 시작했다.

창동, 이라는 지명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창동리 이정표 옆에는 “조선시대 창고가 많아 생긴 지명”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왜 이곳에 창고가 집중되었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찾기 어려웠다. 실마리를 찾기 위해 날마다 동네를 돌아다녔다. 이곳 저곳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젊은이가 궁금하셨는지 나이 지긋한 동네 어른들은 내게 말을 걸어오셨다. 운이 좋았다고

할까, 오며 가며 만난 어른들은 한결같이 동네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인 단서를 잡고 그와 관련한 공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조금씩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땅의 역사와 기억이 지명 속에 여전히 살아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마들로의 ‘마들’은 조선시대 군마를 풀어 기르던 들판에서 유래했다”, “‘한내’는 중랑천의 옛 이름으로, 큰 냇가를 의미한다”는 설명처럼, 지명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투영된 결과이기도 했다.

창동이란 지명은 도성 한양의 북쪽, 북한산의 험준한 지형에 북한산성을 축조하면서 생겨났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조선에서는 한양의 배후 방어를 위해 산성을 쌓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1711년(숙종 37년)에 이르러 성이 완공되며 행궁과 주둔 시설이 마련됐다. 당시 성을 쌓기 위해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보관한 창고가 위치한 곳이 바로 지금의 창동이며, 이로 인해 ‘창동’이라는 지명이 생겨난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평창동 역시 비상시를 대비해 군량미를 저장하던 창고 ‘평창’이 설치된 데서 유래했다. 병자호란(1636, 인조 14년) 당시 남한산성에 고립된 조선이 45일 만에 청에 항복했던 경험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병자호란은 조선뿐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 전체를 흔든 사건이었다. 조선은 청의 속국이 되었고, 명나라의 몰락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창동과 인접한 ‘녹천’이라는 지명 역시 북한산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녹천’은 북한산성 축조를 주도한 영의정 이유(李濡)의 호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이유는 일부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산성 건립을 밀어붙였고, 이를 위해 재정 기구인 ‘경리청’까지 설치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는 가족과 인부들을 이끌고 현장에 직접 머물며 백성과 함께 고된 작업을 감내했다. 이처럼 창동과 녹천은 단순한 행정 지명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역사와 국가적 위기,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장소다. 오늘날에도 녹천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1일, 북한산성 축조의 주역인 이유를 기리는 ‘녹천 대감 치성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작업은 창동에서 오래 살아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시간을 들여다본 기록이다. 창동 곳곳에는 그들의 삶이 남긴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책이나 자료로는 알

수 없는 삶의 결이, 몸과 말의 기억을 통해 전해졌다.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 머물게 될 누군가에게도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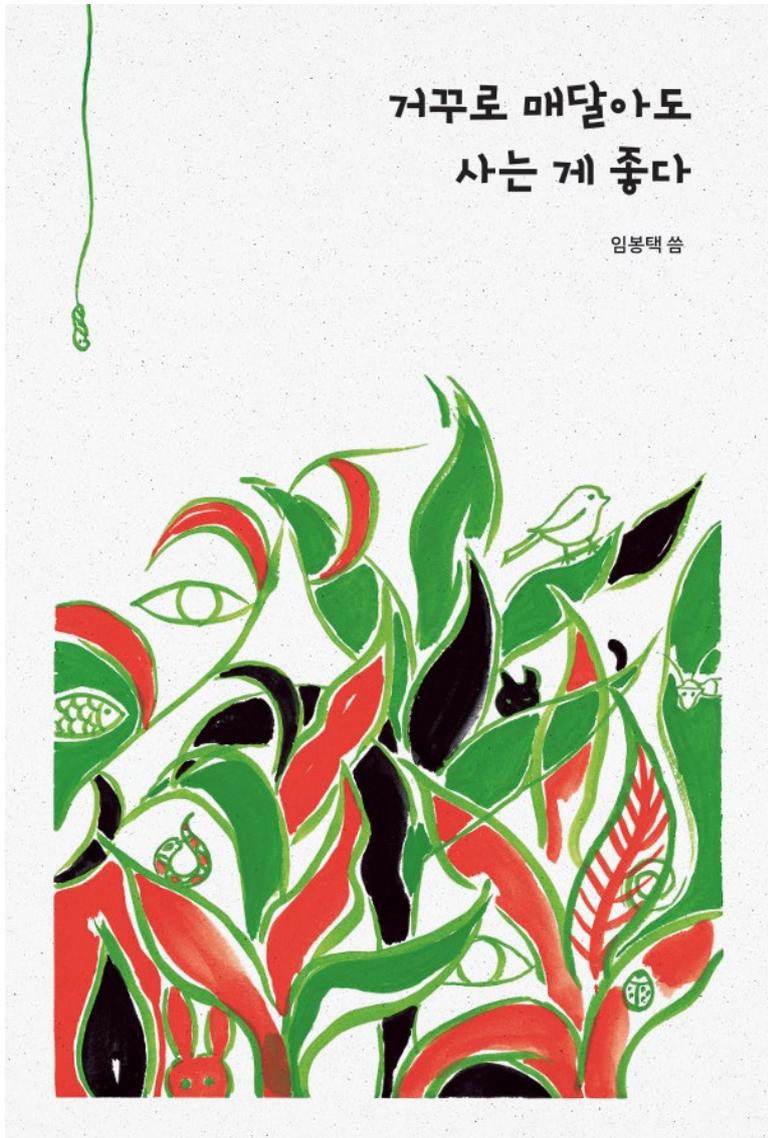
“내 이름은 김순녀야. 1950년생이고, 손주까지 5대째 녹천 마을에 살고 있어. 나는 하계동 연촌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나 이후로는 다들 창동국민학교로 다녔지. 학교 갈 때는 경춘선 철로 위를 걸어서 통학했어.”

“녹천 대감 치성제는 꼭 소고기로 지내. 제사가 끝나면 마을 종을 쳐서 국과 고기를 각자 가져온 냄비에 담아 나눠주었어. 위에 녹천 대감 가묘가 있는데, 그 가묘 덮는 새끼 꼬는 걸 ‘영 엮는다’고 해. 새끼는 꼭 외로 꼬아야 해. 지금은 마을 떠난 사람들이지만, 때가 되면 두 사람이 와서 영을 엮어. 이제 다들 나이가 많아져서,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이상목, 1947년생이야. 노인회장을 지내고 있어. 예전에는 녹천 대감 치성제를 드리려면 일주일 정도 행동기지를 조심하고 몸을 정갈하게 했어. 제사 하루 전에는 제사에 쓸 물을 기르는 녹천 약수터를 아무도 못 쓰게 막았어. 원래 매년 음력 2월 1일, 2월 16일, 6월 1일, 10월 1일에 제를 지냈어. 치성제에는 소고깃국을 올리고, 대감 탄신일에는 국수를 만들어 올렸지. 2017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마을을 떠난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음력 10월 1일 치성제만큼은 함께 모여서 지내고 있어.”

[연재] 임봉택 선생의 옛 이야기 ①



상여와 돼지고기

임봉택

임봉택 선생은 1947년 군산 앞 바다 개야도에서 태어났다. 열세 살 때 아버지를 따라 고기잡이 배를 타며 거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1972년 1월 친구 박춘환, 유명록 선생과 군산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했다. 2010년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재단법인 진실의 힘 설립에 참여했으며 현재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생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옥살이는 선생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결코 잊지 못할 고문의 고통, 그 기억들을 종이 위에 풀어내기 시작했다. 달력 뒷면에, 버려진 공책에 글을 썼다. 처음에는 끔찍한 경험이 쏟아졌지만, 서서히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 하루하루가 신비스럽던 딸의 육아일기, 삶의 가치와 기쁨을 일깨운 독서 일기로 이어졌다. 거칠고 투박한 어부의 손으로 써 내려간 글은 『거꾸로 매달아도 사는 게 좋다』(진실의 힘, 2023) 로 출판됐다. 이 책은 죽음보다 강한 인간의 삶을 소박하고도 아름답게 펼쳐 놓는다. 책에 실린 글 가운데 5편을 골라 뉴스레터에 연재한다.



내 고향 개야도는 1960~70년만 해도 바다에 나가서 죽거나 젊은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잔치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초상집에서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돼지 한 마리는 꼭 잡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만 해도 명절 때 아니면 고기 먹기가 힘들 때였다. 초상이 나면 젊은이들은 산에 가 땅을 파서 시신 모실 곳을 정리하고, 어르신들은 상여를 꾸민다. 시신을 올려 놓을 상여대를 만들면, 여인들은 상여 꽃을 만든다. 시신 모실 꽃상여를 만들어 놓고 동네 한복판 공터에서 “잔치 아닌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왜 “잔치 아닌 잔치”냐? 부모 잃은

가족들은 울고불고 야단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흔치 않은 돼지고기에 떡까지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여들어 잔치 분위기가 되는 것이다.

시신이 집에서 나와 상여에 모셔지면 상여가 시작된다. ‘상여 앞잡이’라고 하는 소리꾼이 장구를 치면서 소리를 메긴다. 소리꾼이 메기는 소리 한 구절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이제가면 언제나 오나 오실 날짜나 일러 나 주오”

그러면 상여꾼들이 후렴을 한다.

“허허허허허허 허이야루 넘자 허~허~허”

이렇게 후렴이 끝나면 소리꾼은 또 소리를 한다.

“가지 마오, 가지를 마오. 정들은 내 님아 나 혼자 두고 가지를 마오.”

가족들은 물론이고 구경꾼들까지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구슬프게 소리를 메기는 ‘상여 앞잡이’ 소리꾼이 있었다.

상여를 메고 후렴을 하는 사람들은 한쪽에 6명씩 12명인데, 상주들은 후렴을 크게 해달라고 앵병(옹기) 소주를 바가지에 따라서 돼지고기하고 마구 먹인다. 왜냐하면 상여꾼들이 얼큰하게 취해야 부끄러움 없이 목청껏 후렴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상여를 놀다가 시신이 땅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면, 상여꾼들은 상여를 맨 채로 동네사람들에 절을 한다. 망자가 동네사람들과 마지막으로 하직인사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서 시신은 북망산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상여가 가는 길 앞에는 만사라는 깃발이 있다. 여러가지 색깔의 천을 이어 깃발을 만들고 긴 대나무 끝에 매달아 들고 상여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만사는 어른들이 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들고가는 풍습이 있었다. 이 깃발을 서로 들고 가려고 야단들이었다. 왜냐하면 깃발을 들고 산까지 가면 돼지고기 한 덩어리와 시루떡 한 바라기(한 덩이)를 주기 때문이다.

시신을 땅속에 잘 모셔 놓고 봉분 쌓는 일이 끝나면 산신제를 지냈다. 산신제를 지낼 때는 세 상 또는 네 상을 차려 놓았다. 그 상 위에는 초상집에서 제일 좋은 음식만 갖다가 차려 놓기

때문에 상여꾼들의 호기심이 집중됐다. 산신제가 끝나기 무섭게 상위에 차려진 음식을 먼저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것이다. (계속)



## [인사] 선물 같은 시간, 진실의 힘

조미진\_전 운영팀장

안녕하세요, 2년 5개월 동안 진실의 힘 운영팀장으로 일한 조미진입니다.

그동안 뉴스레터를 통해 다른 분들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니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2025년 6월 30일 진실의 힘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진실의 힘을 든든히 응원하는 시민으로 함께하려 합니다.

진실의 힘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며칠이고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 속에서 저는, 내가 알지 못했던 시간 속에 누군가는 깊은 고통을 견뎌냈고, 그 고통 위에 지금의 자유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의 힘을 만든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느낀 감동과 감사함 덕분에, 제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곳곳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재단의 살림을 맡으며 처음 가졌던 긴장감과 다짐도 떠오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간의 삶은 폭력보다 강하다”는 믿음을 지키며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123내란 기록 프로젝트를 통해 ‘그날의 진실을 목격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지켜보면서, 그 생생한 이야기 속에 잠시나마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는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의 힘에서 저는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배웠습니다. 진실의 힘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더 오래 듣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무엇보다,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며 진실의 힘을 증명해 오신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 선생님들, 그리고 늘 한결같이 곁에서 함께해 주신 회원님들께 마음 깊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진실의 힘을 응원하는 회원으로 다시, 자주 뵙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후원 감사합니다]

### 후원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강남규 강문민서 강서정 강신경 강영숙 강용주 강은영 강은옥 강창욱 강형철 고동민 고민경 고제영  
곽경란 구민채 구종우 구혜임 권지윤 김경달 김경순 김경아 김경훈 김권호 김남섭 김동민 김민희  
김병선 김상범 김상훈 김선정 김성숙 김성일 김소연 김수지 김순영 김애상 김영희 김용규 김원영  
김유심 김은영 김응수 김이슬 김재명 김정애 김정애 김정인 김정현 김종규 김종환 김주영 김준성  
김지순 김지은 김진용 김충례 김평호 김학주 김한수 김현무 김현정 김환균 김효정 나백주 나원돈  
노복미 류혜정 명지원 모재연 문장렬 민원식 박경미 박계용 박노성 박미옥 박선이 박소희 박수빈  
박수희 박영란 박옥희 박유리 박윤주 박장락 박정남 박종수 박주홍 박중석 박철홍 박현진 박형주  
배소영 배진환 서나경 서민아 서예령 설정희 설정희 손현주 손현철 송소연 송재혁 송지완 신경구  
신동규 신동호 신진숙 심찬섭 안경호 안명옥 양경희 양남훈 염은진 오용관 오현석 우한철 위정미  
유재우 유창진 유현미 윤양희 윤택진 윤혜영 이근행 이미정 이선화 이성엽 이옥 이윤정 이은숙 이은애  
이자영 이재범 이정미 이진 이채훈 이춘희 이한솔 이현주 이해영 이해온 이효림 이희정 임순영 임인자  
임혜영 장영아 장윤정 장은교 전원현 정길동 정길화 정남림 정대하 정미란 정미연 정범진 정유진  
정윤하 정의로 정중호 정주환 정중호 정혜경 정희선 조동찬 조미영 조미진 조은희 조일준 주은진  
채수미 채옥희 채환규 최득록 최보람 최성진 최세정 최승남 최승진 최승진 최영아 최은아 최정식  
최진민 최진숙 하인숙 하지훈 한재희 한정열 한지연 한진영 허연숙 홍순성 홍지연 홍진아 황순규